

민주 “채상병특검법 처리 후 순방 가시라” 국회의장 압박

임시회 개최 촉구...김진표 의장 이달 해외순방 앞두고 반발 확산 “다수의석 민주, 본회의 열 법적 권리 있어...21대 유종의 미 거둬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촉구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야당만 참석할 가운데 표결할 수 있도록 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 해외순방을 앞둔 김진표 의장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던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것은 단순히 김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 문제로 갈 수 있다”면서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

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인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본회의를 열)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의장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법안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이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것은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의 경우는 본회의의 부의 자체를 표결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실에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본회의

의 개의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차기 국회의장 경선에 나오겠다고 밝힌 우원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에게 옳은 일을 찾는 것이 민심을 만드는 국회의장의 자세”라며 “김 의장은 2일 본회의 개최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5월 임시회에는 국회의장의 시간이다. 2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오는 4일부터 8박12일 일정으로 미국·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아메리카 대륙 해의 순방을 떠난다. 김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을 고려할 경우,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이르면 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악의 경우 관련 재표결안은 이달 29일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신수정 광주시의원 발의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수정 광주시의원(민주·북구3)은 ‘광주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원 환경복지위원회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독거노인은 2021년 6만 1263명, 2022년 6만5616명, 2023년 7만449명으로 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역시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고독사는 2019년 113명, 2020년 118명, 2021년 111명 등 매년 비슷한 추세여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무연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 대상자와 방법을 대해 규정을 담았다. 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해 요양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여정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안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22대 국회 개회 즉시 김전희특검법 발의”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전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는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이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 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한다는 특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국혁신당 주장처럼 22대 국회의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야, 오랜만의 합의 국의인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김치타운 하수처리 관리 못해 혈세 낭비”

홍기월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허술한 민간업체 계약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계약 시 ‘업체 부담’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광주김치타운 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김치 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처리하는 데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민주·동구1)은 1일 제324회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김치타운의 단일한 행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폐수 처리장 슬러지를 지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김치타운은 이번 추경예산에 김치 가공 공



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와 노후기계 설비 방청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했다. 김치 가공 공장은 2010년 (사)광주김치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김치타운까지 14년 동안 총 5개 사용자에게 의해 운영돼 왔지만 폐수 처리장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는 슬러지 처리가 시급한 점을 이유로 이번에만 편성액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행정의 부재를 통감하며 새로운 업체와 계약 시에는 슬러지 처리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

‘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법 상임위 통과

채은지 광주시의원 발의

광주지역에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민주·비례)은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 동기가 없거나 장소, 상태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다. 앞서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을 행사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해 바 있고, 광주 지역에서도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자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이상동기 범죄는 총 23건 발생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고 글을 게시한 사례는 총 8건이며, 이 중 5명은 검거했고 3건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예고일이 지난 상태다.

조례안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환경 개선,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의료비·구조금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김혜나 기자 khn@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